

신규 시설 확대 다양한 볼거리 제공

익산교도소세트장, 100만 관광객 목표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 상품 개발 박차

학교가 교도소로, 이제는 법정까지, 익산교도소세트장의 모습이 또다시 진화한다.

올해 초 정현을 익산시장은 "1000만 관광객이 세트장이라는 익산교도소세트장의 명성에 걸맞게, 올해는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보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드라마영화 인기촬영지인 익산 교도소세트장에 소법정과 관광객 전용 망루 등을 신설하여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익산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급격한 관광객 수 증가에 대비해 세트장 학교동에 편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래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가 폐교된 뒤 학교 터에 2006년 홀리데이 영화세트장으로 지어진 것이다.

최근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변신은 국내 제1호 교도소 세트장으로 인기를 끌며 교도소 촬영 내용과 연계되는 소법정 세트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교도소 망루는 원래 촬영용으로

로 지어진 곳이나 많은 방문객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 에서 본 망루를 올라가 보고 싶어 해 관광객 전용 망루를 별도로 신설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은 바로 관광객수의 급격한 증가이다.

교도소 세트장 관광객은 2016년 2만 6049명에서 2017년에는 10만2226명으로 전년 대비 395%로 한해 동안 약 4배로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처럼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인기 드라마, 영화에서 교도소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익산교도소세트장 관광객 특수가 생겨난 덕분이다.

현재 상영 중인 SBS 수목드라마 '이판사판', SBS 월화드라마 '의문의 일승'을 비롯해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 함께' 등 지난해에도 총 16편의 영화, 드라마가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촬영됐다.

2005년 이래 현재까지 250편 이상의 드라마, 영화에 배경이 됐으며 '시그널', '구해줘', '크라미남카인드', '널 끝없는 여자', '최강배달꾼' 등 각 방송국 대표 드라마들 뿐만 아니라 타짜, 컨트롤, 불한당, 1000만 관객을 돌파한 7편의 선물 영화 촬영지로 명실상부한 국민 교도소로 자리 잡았다.



익산교도소세트장에 소법정과 관광객 전용 망루 등을 신설하여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료 죄수복 체험이 제공되며, 지난 4일과 5일 MNET다큐 마지막 죄수복을 입고 드라마 따라하기, 독방체험, 감옥 속의 인생 사진 찍기 등이 짧은 층 사이에 SNS로 유행하면서 주요 관광명소가 된 것이다.

여기에 시골 마을 속 교도소세트장을 방문한 이들을 위해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졌다.

올해도 관광객 특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소방서, 작년 하루 평균 58회 출동

군산소방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2만 1,441건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출동 유형별로는 화재 429건, 구조 5,618건, 구급 1만 5,394건을 출동하여 하루 평균 58회를 출동한 셈이다.

지난 1년간 관내 화재출동 건수는 429건으로 2016년 대비 4.2%(18건) 증가하였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화재 안전 의식과 군산소방서의 꾸준한 예방활동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241건에 그쳐 18.3%(44건) 감소하였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5명으로 47.7%(7명) 증가하였지만, 사망자수는 1명으로 2016년 5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구조출동은 5,618건을 출동하여 2016년보다 1.3%(72건) 늘었고, 구급출동 또한 1만5,394건을 출동하여 2.4%(367건)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도 2017년 한 해 동안 1,287회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18개 대상에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만9,813명의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분석한 소방정책 자료를 활용해 맞춤형 소방대책을 추진,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조성환 박사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한글판 출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사상연구원 조성환 박사가 지난 20년간 일본에서 한류 관련 인문학 분야 베스트 셀러였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한글판을 출간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는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에서 한국철학을 강의하는 오구라 기조(小倉紀綱) 교수가 1998년 일본어판을 출간한 이래 20년 만에 한글판이 나왔다.

원저자 오구라 기조 교수는 현대일본에서 한국철학이나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이상(異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에서 한국철학을 비롯한 한국학(韓國學) 연구 및 활성화를 견인하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학자로 유명하다.

또한, 현존하는 일본인 학자 가운데

가의 유일한 정도로 한국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오구라 기조 교수는 '한국 사람과 사상의 여행(2004)', '비움으로 이는 한국(2005)', '한류 핸드북(2007)', '하이브리드화하는 한일(2010)' 등 수준 높은 한국학 저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했으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는 그의 출세작이기도 하다.

오구라 기조 교수는 현대한국에서 민주화 시위로 가장 '뜨거웠던' 시대인 1980년대 서울대 대학원 철학부에 진학해 8년 동안 학생들과 최후단 연기를 함께 마시며 한국철학을 공부하고, 이 어렵 김용옥 교수 김지하 시인 등 한국의 대표적 지식들을 두루 찾아 '깊은 공부'를 거듭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매우 깊고 넓은을 보여 주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운영할 것”

정현을 익산시장, 29개 읍면동 순회 소통의 장 마련

정현을 익산시장은 4일 팔봉동 삼성동 어안동을 시작으로 2018 시민과의 대화의 합한 첫발을 내딛었다.

30만 시민과의 대화는 이날 17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기존의 경직된 주민간담회의 형식을 벗어나 시민과 시장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가는 토크콘서트 방식을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시정에 녹아들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전곡(장애인)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미래 교육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2018년 5대 핵심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녹아있다.

지난 4일 오전, 팔봉동행정복지센터

에서 시민과 첫 대화의 물꼬를 튼 정 시장은 이날 삼성동 어안동 5일에는 영등1동 영등2동 등 동부권 도심지역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대화를 이어갔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은 전국적인 유치에 따른 교통, 편의 등 제반시설의 시급한 확충, 공설 묘지 등 협소시설에 대한 대책, 무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 등 역사지역으로서의 개발 등 다양한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이어갔다.

또한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익산에 산재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진흥 발전 등 익산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제안도 이어졌으며 교통, 용배수로 등 지역별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다양한 건의도 이루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들에 심혈을 기울여 답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하는 것은 '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운영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차후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고 시정에 전념할 것"임을 밝혔다.

덧붙여 시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시정에 녹아 익산시의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약속하고 그 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경직된 분위기의 주민간담회가 아닌 시장과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내 의견이 직접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 주민과의 대화는 이날 17일까지 29개 읍면동에서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게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대 신소미 씨, 자유학기제 유공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광장근)의 신소미 씨가 2017년도 자유학기제 유공부문에서 자유학기제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신소미 씨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2016년에 12회에 걸쳐 300여명을 교육하였고, 2017년에는 10회에 걸쳐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진로 및 직업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익산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있는 익산시가 전세임대주택(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익산시(시장 정현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9가구를 오는 17일~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주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임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알아본 뒤, 신청하면 LH가 주택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 제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대상자는 2순위 대상자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년 12월 29일) 현재 익산시에 거

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1만5,130원)인 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등 특정에인 세대다.

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며, 가점부여서류(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등)가 있는 세대는 기본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추천하게 되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2018년 3월 하순경 LH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돌길

꿈·환·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